프랑스 예술가들, 한국불교 禪을 만나다

동국대, 12월 12일
수불 스님 · 예술인 대담 개최

수교 130주년展 참가 예술인들
수불 스님에게 禪에 대해 질문
알기 쉽게 불교와 수행 설명해


동국대는 12월 12일 학명세미나실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 왼쪽)과 프랑스 예술인과 선의 세계 대담을 개최했다.

"어떤 스님은 히말라야에 가서 먹지도 마시지 않고 수행하는 데 이것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제가 만난 스님들의 옷은 빨간색이거나 주황색이었는데 스님의 옷은 왜 회색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스님에게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스님은 막힘없이 수행과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대중들은 진지한 답변을 경청하고 때로는 위트 있는 설명에 웃음을 지었다.

종교와 예술,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스님과 예술가들이 한국불교와 선 수행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2월 12일 학명세미나실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프랑스 예술인과 선의 세계 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대담은 한 · 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계현대미술전'에 참가한 프랑스 저명화가 2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담은 수불 스님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자기 눈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우리는 거울에 비친 눈이 자신의 눈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며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 본다.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 프랑스 예술인들은 불교와 철학의 차이, 명상 수행 등 자신들이 평소 궁금했던 불교에 대해 수불 스님에게 질의했다.

평소 명상 수행에 관심이 많은 한 예술인은 선과 명상 수행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수불 스님은 흙탕물을 비유해 차이점을 설명했다.

수불 스님은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흙과 불순물이 침잠된다. 명상은 이와 같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면 다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며 "선은 근본적인 문제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수행승들의 고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변의 입장에서 답했다. 수불 스님은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착각 속에서 수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교에서는 고행 뒤에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럿이 더불어 사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복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예술인도 여럿이었다. 스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지, 왜 회색 승복을 입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한 예술인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세잔은 자신이 가장 어려워한 색으로 회색을 꼽았다"며 회색 승복에 대한 의미를 묻기도 했다.

이에 수불 스님은 "지금 장삼 위에 가사를 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하며 "회색은 모든 것이 모아진 색이다. 모든 것이 귀결되는 색"이라고 답했다.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수불 스님은 침묵도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스님은 "또 다른 대화의 이면은 침묵"이라며 "침묵 속에서 정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함께 정성껏!" 구호에 2,000kg 김장도 '거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한화S&C, 12월 13일 '제7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행사 현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한화S&C와 12월 1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서 '제7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개최했다.

불교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모여 소외된 이웃에 나눌 2,000kg 분량 김장을 뚝딱 만들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한화S&C(대표이사 김용욱)와 12월 1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용권)서 '제7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개최하고 지역 취약계층에 나눌 김장 2,000kg을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은 쌀 500kg과 함께 영등포구 거주 저소득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엔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 스님을 비롯해 한화S&C 봉사단 · 한화S&C 협력사 임직원 · 조계종자원봉사단 · 삼정학교 학부모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상 스님은 "보살은 불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누군가 아플 때 같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라며 "김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나눔 활동이다. 오늘 와주신 분들은 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훌륭한 보살"이라고 말했다.

박찬홍(53) 한화S&C 상무는 "연말에 송년회서 술 마시는 것보다 이웃에 나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단 생각에 매년 봉사하고 있다. 오히려 직원들이 배우고 가는 행사"라며 "'함께 · 멀리'란 회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온성군서 온 탈북자 이현화(64) 씨는 "북한과 달리 김치에 빨간 고춧가루를 쓰고, 손도 많이 가 힘들지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단 생각에 자원했다. 우리나라만의 전통인 김장은 이웃과 공감하기 참 좋은 행사 같다"며 "같은 탈북자 7명을 더 모아 왔으니 적극적으로 김장을 담그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화S&C는 IMF 이후 꾸준히 소외계층 나눔 사업을 진행하다 2010년 조계종복지재단과 협업,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행사로 김장 · 연탄 · 쌀 등 후원해왔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자들이 캄보디아에 전한 행복바람

(사)날마다좋은날, 캄보디아서 분야별 봉사

조계종 교구신도회와 각 신도단체 임원들이 캄보디아에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행복의 바람을 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박7일간 캄보디아 씨엠립서 '2016 행복바라미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실시했다.〈사진〉 올해는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 일환으로 31개 단체 78명이 1 · 2차 팀을 나눠 봉사에 동참했다. 봉사자들은 현지 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지부와 로까 초등학교서 유치원 건물 신축을 돕고, 학용품을 기증했다.

특히 건강나눔팀은 한의사불자연합회 의료진과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이 협력해 내과 · 외과 · 소아과 등 한방진료와 보건교육, 불소도포, 영양제 및 구충제 보급 등을 도왔다. 문화나눔팀은 제기차기 · 투호 등 한국전통놀이와 연꽃만들기 · 전통부채 꾸미기 등 문화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환경나눔팀은 건물도색과 운동장 평탄화 등 학교시설을 보수했다. 또한 봉사자 전원이 저가항공을 이용해 남은 차액으로 '행복바라미 유치원'을 신축, 간이막사서 공부하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공간을 제공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진료를 돕고 있는 의료봉사팀.

날마다좋은날 측은 "이번 봉사는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부처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며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전국을 넘어 해외로 퍼져나가 한국불교 또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 영어로 뽐내자

국제포교사회, 내년 1월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10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예선은 7일에 열리며,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한다. 본선 진출자 발표는 9일.

참가자들은 자타카 이야기 한 편을 영어로만 암송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이 표현력 · 영어발음 · 태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대회서 레크리에이션과 공연, 선물나눔 등도 이뤄진다.

참가자격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개인 또는 2명이 팀을 구성하면 된다.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cafe.daum.net/IDIA)서 본인 연령에 맞는 원고를 선택해 암송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12월 24일까지 이메일(ipogyo@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2-2203)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한편 지난 대회에는 전국서 24개 팀 26명이 예선에 참가해 15개팀 17명이 본선에 올랐다. (02)722-2206 **윤호섭 기자**

"공무원도 봉사하며 부처님처럼…"

공불련, 12월 11일 보현의집서 자비행

공무원불자들이 연말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행에 나섰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12월 11일 감사원 불자회를 비롯한 10개 기관 불자회 48명이 동참한 가운데 노숙인 자활시설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제14차 공불련 사회봉사의날 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이날 공무원불자들은 점심식사 급식 준비와 배식, 시설청소, 제과체험 등을 했다. 또 십시일반 모연한 2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상규 회장은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하고 싶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보현의집에서 좋은 봉사를 하게 돼 조금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